

담양군,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위한 겨울철 예찰 강화



관내 유입방지위해 사과·배 과수원 약 11.6ha 대상 집중 예찰 치료약 없어 발견 즉시 신고해야...전정 시 작업도구 소독 당부

담양군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수원 약 11.6ha를 대상으로 겨울철 집중 예찰을 하고 있다.

국내 화상병균은 2000년대 초·중반 북미 중·동부지역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사과·배나무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이다.

감염 시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아 과수화상병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경기도 안성 배 과수원에서 처음 발견된 뒤 2017년 22.7ha, 2019년 131.5ha로 발생면적이 증가하다가 2020년 330.6ha(9.23 기준)로 겹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 과수화상병분과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감염경로는 주로 개화 시기의 매개 곤충, 비바람, 작업 도구, 감염된 묘목으로 확산하며, 미발생지역은 주로 농작업자에 의해 전염되고 있어 나무 전정 시 한창인 겨울철이 가장 위험하다.

치료약이 없는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는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1833-8572로 신고해야 하며, 동계전정 시 전정 도구와 장화, 작업 도구 등의 철저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속도가 빨라 발생 과일 폐일은 물론 반경 100m 이내 과원까지 매몰되므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난생 처음 요리도전! 아버지 용기내세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아버지 요리반’ 교육생 모집

화순군이 효율적인 가사분담과 건강 식문화 정착을 위해 ‘아버지 요리반’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아버지 요리반은 2월 24일 개강해 3월 10일까지 운영한다. 강의는 매주 수·목요일 총 5차례 열린다.

교육생은 성인 남성 20명을 모집하고 강의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실습은 한 차례 진행하는데, 교육생이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요리하고 실습 과정을 담은 결과물(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 교육 자료는 교육생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받아 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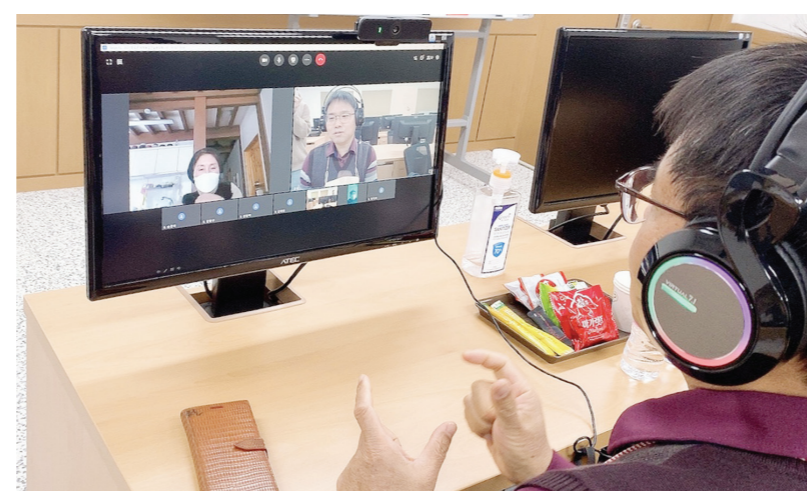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산물 이용한 더덕밥, 된장찌개, 북어국, 새송이 무침 등 일상에서 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주제로 교육한다.

요리에 관심이 많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버지 요리반 교육을 통해 아버지가 요리에 자신감을 얻는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들이 요리를 매개로 가족 화합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비대면 방식에도 높은 인기 코로나19 대응한 온라인 교육 긍정적 계기 마련



곡성군이 지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 2021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에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생소한 방식에도 241명이 참여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곡성군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식량작물(옥수수, 콩), 채소(고추, 딸기), 과수(배, 체리, 단감, 사과, 매실), 도시농업(치유농업)이라는 4개 분야에서 총 10개 과정의 교육을

준비한 것이다. 또한 교육 전 날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교육 시작 전에는 주요 농정시책 홍보 영상을 제공해 교육 집중도를 높여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농사를 위한 중요한 교육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진행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 값진 기회이기도 했다. 앞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 과정에서 제외된 친환경 벼 등 2개 과정은 교육내용의 특성을 감안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곡성=양혜영기자

“동(冬)장군 이겨낸 겨울 미나리 납시오” 장성군, 정성 담아 맛·향기 일품... 강장·이노·해열 효능도

겨울철의 ‘건강 지킴이’ 장성 미나리가 소비자의 밥상을 찾아간다.

장성군은 최근, 매서운 겨울 날씨를 이겨낸 미나리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다고 전했다.

장성 겨울 미나리는 ‘밭 미나리’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다. 농부의 세심한 관심 속에 자란 장성 미나리는 속이 짙 차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또 특유의 향긋함이 풍성해 어떠한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장성 미나리는 친환경농법으로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6일 청사 이화실에서 입장문을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급 규모는 세출 예산 절감과 재정 수요 분석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경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보탬이 되도록 당초 설명절 이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다소 지급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새롭게 단장...18억원 투입

구례군이 대표 공공체육시설인 구례실내수영장을 새롭게 단장한다.

구례군은 총18억원을 들여 수영장 지붕교체, 수처리 설비교체, 건물열원 보수 등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다. 공사는 4월초 본격적으로 시작해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개장한 수영장은 지붕누수와 기계설비 노후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돼왔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애초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10월 보수작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 휴장 기간이 길어져 조기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례실내수영장은 저렴한 이용료와 경로우대, 어린이 대상 50%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1일 평균 320명이 이용하는 구례군의 대표 공공체육시설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실내수영장의 철저한 보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